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최고 인기종목은 '하이다이빙'



Fina
WORLD
CHAMPIONSHIPS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홍보 이미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최고 인기종목은 하이다이빙으로 나타났다.

1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영대회 입장권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종목은 하이다이빙이며, 수구 종목이 가장 판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가 수영대회 개막 25일을 앞두고 종목별 입장권 판매율을 분석한 결과 경연,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수구, 오픈워터수영, 하이다이빙 등 6개 종목 중 하이다이빙이 전체 입장권 중 96%가 팔려나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축구장에 약 27m의 높이로 다이빙대와 입수조를 설치해 경기를 치른다.

하이다이빙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27m(남자), 20m(여자)의 아찔한 높이에서 지름 15m, 깊이 6m 수조로 뛰어내려 종목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이빙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과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진 영상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물속의 마라톤'이라 불리며 바다 위에서 5km, 10km 장거리 경기를 펼치는 오픈워터수영은 44% 가량 팔려 두 번째로 높은 인기를 차지했다.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펼쳐질 오픈워터수영은 여수바다의 아름다운 전경과 엑스포 때 설치한

우리나라에서 수구 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았던 이유로 분석된다.

수구는 유럽과 북미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물속에서 펼쳐지는 핸드볼 경기처럼 선수들의 수영복이 찢어질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

입장권 96% 판매 돼 6개 종목 중 최고 판매율

'물속의 마라톤' 오픈워터는 판매율 44% 2위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뤄 이미 국제수영연맹(FINA) 기술위원들에게 최적의 경기장소로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종목은 '물속의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 수영으로 32%가 판매됐고 세계 최고의 스피드 건을 뽐내는 경연 경기가 31%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판매율을 보인 수구는 전체 판매율이 19%대로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수구 출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소한 경기지만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주요 경기다.

한편 현재까지 전체 입장권 판매율은 46.4%로 17만1000여 매가 팔렸고 금액 대비 누적판매량은 58% 43억2000만원 상당이 판매돼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입장권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봉우 기자

유소연, 마이어 LPGA 클래식 톱10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LPGA 클래식에 나선 유소연(29·메디힐)이 톱10으로 대회를 마쳤다.

유소연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래피즈의 블라이어필드 컨트리클럽(파72·6639야드)

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39언더파 275타를 적어낸 유소연은 평산산(중국) 등과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유소연은 3라운드에서 공동 20위까지 밀려났지만 뒷심을 뽐내며 US

오픈 공동 2위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보기없이 버티던 4개 잡았다. 시즌 세 번째 톱10이다.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유소연에게 1타 뒤진 공동 16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은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 공동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스

“기적은 없었다” 한국, 여자월드컵 전패 탈락

여민지 월드컵 첫 골 수확……프랑스·노르웨이 16강



기적은 없었다. 한국 여자 축구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프랑스 랭스 스타드 오귀스틴 들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노르웨이에 1-2로 졌다.

프랑스와의 개막전에서 0-4로 무너진 한국은 나이지리아전 0-2 패배에 이어 노르웨이에도 인격을 당했다. 3전 전패 조 최하위로 16강 토너먼트 진출이 무산됐다. 두 대회 연속 16강행에 도전했지만 승점 없이 씁쓸히 집을 싸게 됐다.

윤덕여 감독은 나이지리아전과 같은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최전방은 여민지가 책임졌고 지소연과 강채림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낙점됐다. 센터백은 김도연과 신

담영이 호흡을 맞췄다. 전반 4분 만에 실점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주장 조소현이 공을 다루다가 페널티킥을 내렸다. 카롤리네 그라함 한센의 슈트 성공으로 노르웨이가 1-0 리드를 잡았다.

더 이상 불려질 곳이 없던 한국은 적극적으로 공세를 나섰다 하지만 전반 14분 여민지의 헤더는 골키퍼에게 향했고 전반 22분 문미라의 슈트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경기를 지배하고도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초반 한국은 또 다시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이번에는 강채림이 파울을 범했다. 축구화가 잔디에 걸리면서 원했던 타이밍에 태클이 이어지지 않았고 이에 노르웨이 선수가 달려 넘어져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시탈 헤르브센의 슈트 골망

을 흔들면서 스코어는 0-2가 됐다. 한국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경기는 잘 풀리지 않았다. 마지막 패스가 번번이 벗어났고 슈트의 정확도 또한 떨어졌다. 후반 19분에는 왼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이했으나 다행히 상대 실수로 추가 실점을 막았다.

끊임없이 두드러던 한국은 후반 33분 마침내 한 골을 만회했다. 이금민의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를 받은 여민지가 수비수의 방해를 뿌리치고 넘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여민지의 월드컵 무대 첫 골이었다.

한국은 남은 시간 총공세를 펼쳤으나 후반 38분 이금민의 오른발 슈트 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여민지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그대로 주저앉았다. 슈팅수 23-8의 압도적 우위도 소용없었다.

같은 시간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1-0으로 격파했다. 한국전에서 머리로 두 골을 넣은 장신 수비수 웬디 레나드가 페널티킥 결승골을 뽑아냈다.

3전 전승을 달린 프랑스는 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다. 노르웨이가 2승1패(승점 6)로 뒤를 이었다. 나이지리아는 1승2패(승점 3)로 3위가 돼 와일드카드로 16강행을 타진하게 됐다. 24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6개 조 상위 2개팀과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팀이 토너먼트에 나선다.

뉴스스

남자 사브르·여자 에페 대표팀, 아시아펜싱선수권 금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과 여자 에페 대표팀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과 여자 에페 대표팀이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상욱(성남시청), 구분길(국민체

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 하한솔(성남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표팀은 8강에서 베트남을 45-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45-37로 꺾었다. 결승에서는 이란을 만나 접전 끝에 45-42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다.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시구청), 이혜인(강원도청), 정효정(부산시청)으로 이뤄진 여자 에페 대표팀은 같은 날 열린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45-3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16강전에서 뉴질랜드에 45-23 대승을 거둔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이란을 45-29로 눌렀다. 준결승전에서는 홍콩을 45-31로 이겼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 11연패 달성에도 더 가까워졌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